

보도해명자료	보도일시	2017년 9월 22일(금) 배포시
	담당자	유재광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위원 (044-550-4737, jkyou@kdi.re.kr)
	배포일시	2017년 9월 22일(금)
	배포부서	KDI 홍보팀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

뉴스 등 일부 언론 21일자 KDI 수행 호남고속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도 관련 해명

<보도 내용>

- 뉴스1 등 일부 언론에서 21일 황주홍 의원의 언급을 인용,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의 무안국제공항 경유와 관련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관련,
 - “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1년 이상 지속시키면서, 올해 8월 16일 중간점검회의 때는 노선별 기계적 장단점만 보고했다”라며
 - “이는 무안공항 경유노선을 무산시켜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정부 예산당국의 의도에 KDI가 고의적으로 놀아나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길 없다”라고 보도

<KDI 입장>

- KDI는 기획재정부에서 의뢰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, 그 과정에서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수차례 검토 의견이 있었음.
-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침과 적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,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 결과를 제시할 예정임.